

# ‘우범기 지지’ 독려 의혹 이연상 이사장 수사

## “자광 사업이행 능력 확인 못해” 대한방직 개발, 28일 ‘분수령’

전주시설공단 이사장, 地盤 앞두고  
회식서 재선 취지 건배사 의혹  
문자등 우전시장 지지 독려 혐의  
전북선관위, 지난달 수사 의뢰



이연상 이사장

우범기 전 전주시장때 임명된 이연상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단 직원들에게 우전 전주시장에 대한 지지를 독려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법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일 전주 완산경찰서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연상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발 건에 대한 조사가 착수했다.

이씨는 4월 민주당 전주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우전시장의 재선을 돕자는 취

지의 건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건배사에는 재선을 의미하는 “한 번 더”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단 직원과 지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우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당내 경선에서 석패,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고 결국 조지훈 현 시장이 당선됐다.  
전북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이 이사

장의 이런 행위를 포착, 지난달 1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에 대해서도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인물을 대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이씨의 발언과 메시지 내용, 실제 선거운동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 이시를 불러 구체적인 혐의와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최한별 의원

월 28일까지다.  
더욱이 현재까지 자광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주시는 자광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광이 오는 28일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주시가 협약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 시장은 관련 법률상 근거 규정은 5년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자광이 협약상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재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을 환원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자광의 사업계획을 전제로 이뤄진 토지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또 다른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 역시 협약이 취소될 경우 단순히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기존 개발계획을 이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470m 타워의 필요성을 비롯해 주거·상업·업무·공공시설의 적정 규모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을 포함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9월 28일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사실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광이 사업수행 능력과 구체적인 자금조달 및 착공 계획을 제시할지, 아니면 협약상 기한을 넘겨 사업이 중단되고 도시관리계획 환원과 함께 새로운 개발방향을 모색하게 될지 전주시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가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맞춰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면, 향후에는 사업자의 사업성에 행정이 끌려가기보다 전주시에 필요한 개발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맞는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경일 기자



제7회 지니포럼 개막식

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열린 제7회 지니포럼(GENIE)개막식에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 제19회 전북여성영화제 ‘희허락락’ 3일 개막

개막작 ‘남태령’ 등 10편 상영  
지역 여성 제작 작품 2편도 선배  
전 작품 무료 관람...현장신청가능

여성의 다양한 삶과 경험을 영화를 통해 조명하는 제19회 전북여성영화제 ‘희허락락(喜Her樂樂)’이 3일부터 5일까지 메가박스 전주객사점에서 열린다.  
3일 도에 따르면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여성의 다양한 삶과 경험을 조

명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나누며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유연하다. 유연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10편을 선보인다. 노동과 돌봄, 관계와 기억, 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를 스크린을 통해 풀어낸다.  
첫날인 3일 오후 6시 30분에는 개막행사가 열리며, 김현지 감독의 ‘남태령’이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남태령’은 서로 다른 삶의 현장에 있던 농민과 시민

들이 만나 연대해 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영화제 기간에는 개막작을 비롯해 ‘지우러 가는 길’, ‘공순이’, ‘오늘의 카레’, ‘이반리 장만옥’, ‘안경’, ‘첫여름’, ‘파란불’ 등 여성의 삶과 현실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관객을 만난다.  
폐막일인 5일에는 지역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한 ‘F 우먼’과 ‘울지 않고 말하기가 상영된다. 지역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직접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모든 상영작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김익자 대표는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삶이 담긴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영화제에 많은 도민들이 찾아오셔서 감동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2026. 9. 10.(목) ~ 13.(일) | 장수읍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

9월 10일(목)

대학가요제 리턴즈

샌드 페블즈

옥슨80

9월 11일(금)

장수군홍보대사 최재명 김연자 손빈아 유니스

배기성, 정윤영

9월 12일(토)

민경훈 먼데이 키즈

뮤즈그레인

9월 13일(일)

박현빈

오로라

주최·주관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전북 유인섬 인구 4천명선 붕괴”

1년 새 3.2% 감소  
섬 지역 정주여건  
경제 활성화 과제로

전북지역 유인섬의 거주 인구가 4천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섬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구조도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에 집중돼 있어 안정적인 정주 기반과 지속 가능한 소득원 확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호남·제주지역 유인섬 사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북지역 유인섬은 모두 25개이며 이 가운데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

은 비연륙섬은 19개로 집계됐다.

전북 유인섬 거주 인구는 3,981명으로 전년 4,112명보다 131명 감소했다. 감소율은 3.2%에 달했다.

섬 지역의 인구 기반이 해마다 약화되면서 교통과 의료,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섬 지역 경제는 관광과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전북 유인섬에 소재한 사업체는 모두 765개로,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이 264개로 전체의 3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매 및 소매업이 194개로 뒤를 이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04개, 농업·임업 및 어업 97개 순이었다.

이어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5개, 부동산업 36개, 건설업 17개, 광·제조업 8개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관광객과 주민 소비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두드러졌다.

전북 유인섬 사업체의 매출액은 총 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임업 및 어업이 261억원,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사업체 수에서는 숙박·음식점업이 가장 많지만 매출액은 도소매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 섬 지역 경제가 관광·음식·소매업 등 생활·관광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에서는 섬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단순 관광객 유치에 머물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안정적인 해상교통망과 의료·복지 서비스 확충은 물론 수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섬별 특화산업을 육성해 청년층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섬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역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섬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는 오늘부터 6일까지 사흘간 도청 서편광장에서 '2026년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맛있고 저렴한 축산물, 한자리에”

전북자치도, 추석맞이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축산농가의 소비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축산물 할인행사를 마련한다.

도는 오늘부터 6일까지 사흘간 도청 서편광장에서 '2026년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판로를 확대하는 동시에 도민들에게 품질 좋은 전북산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우·한돈·낙농·오리·양봉 등 생산자단체와 전북한우협회, 농협목우촌, 임실치즈농협 등 도내 축산 관련 기관·업체가 참여해 한우와 한돈, 계란, 유제품 및 축산가공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한우·한돈 등 주요 축산물은 최대 30% 이상, 축산가공품은 품목에 따라 최대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주요 품목별로는 한우 1+등급 등심을 100g당 10,600원에 20% 할인 판매하고, 1+등급 정육은 100g당 3,900원으로 30% 할인한다. 한돈은

삼겹살을 100g당 2,500원에 27%, 목살은 2,200원에 32%, 앞다리살은 1,400원에 43% 할인 판매한다. 계란은 30구 한 판을 6,500원에 판매한다.

가공품도 할인 판매된다. 참프레제품은 품목별 20~53%, 농협목우촌은 23~46%, 임실치즈는 10~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된다. 행사장에서는 한우·한돈 스테이크와 수육, 구운계란, 우유, 치즈 등을 맛볼 수 있는 시식행사를 비롯해 한우 사진전, 경품 추첨, 축산물 이력제 홍보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도는 이번 행사가 추석을 앞둔 도민들의 제수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북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축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행사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민들도 우수하고 안전한 전북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면서 지역 축산물 소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기·지하수 없이도 ‘빗물’ 모아 농업용수 확보한다

농진청, 무동력 통합  
농업용수 공급 기술  
개발… 가뭄 피해 완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마을 단위로 빗물을 모아 발작물 관개용수로 활용하는 '무동력 통합 농업용수 공급 기술'을 개발했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잦아지면서 농업용수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산간·고지대는 지하수 관정 개발과 전력 공급에 제약이 있어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무동력 통합 농업용수 공급 기술'은 별도 동력원 없이 빗물을 모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에 공급하도록 설계됐다. 비가 내릴 때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 버리는 빗물(강우 유출수)을 그대로 흘러보내지 않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은 '집수-전처리-저장-이송' 네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지표면을 흐르는 빗물을 집수장치에 모으고, 원심력을 이용한 장치(하이드로 사이클론)로 흙과 이물질을 걸러 낸다.

이후 걸러진 물은 주 물탱크에 저장되며, 탱크가 가득 차 넘치는 물은 다음 물

탱크로 넘어가 마을 단위로 필요한 용량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장한 물은 낮은 곳은 높이차를 이용해 물을 흘러보내고, 높은 곳은 수직펌프를 이용해 최대 12m 높이까지 무동력으로 보낼 수 있다.

연구진이 기후·지형 여건이 다른 2곳(전북특별자치도 장수, 경남 함천)에서 2023년 4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현장 실증한 결과, 하루 평균 물 부족량은 최대 57% 감소했다. 최대 연속 물 부족 일수도 18~21일에서 13~16일로 가뭄 시 피해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 기술은 지하수 관정 개발이 어렵고, 전력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중산간·

고지대 지역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농촌 현장에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2일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농촌진흥청 발농업기계과 김병갑 과장은 “전기도, 끌어다 쓸 물줄기도 없는 농촌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기후 위기 시대에 발작물 가뭄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 대안으로 확산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고창군, 녹두장군 이야기 담은 ‘녹두 디저트’ 만들었다

표준 레시피 및 상품화  
기반 마련 목표

전북 고창군이 녹두장군(전봉준)의 출생지를 알리는 녹두 디저트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고창읍 카페 트리어에서 '2026년 녹두 활용 디저트 메뉴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시식평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생활개선회원, 학생, 일반 군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녹두 라떼, 녹두 미수, 녹두치즈케이크, 녹두 타르트 등 녹두 디저트를 직접 시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녹두를 활용해 대중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시그니처 디저트를 개발하고, 관내 카페에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표준 레시피와 상품화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녹두는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을 상징하는 고창의 역사·문화적 자원이다.

고창군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인 디저트에 담아 '녹두 디저트=고창'이라는 새로운 지역 대표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 관내 카페 4곳이 함께 참여해 녹두 라떼, 녹두 미수, 녹두치즈케이크, 녹두 타르트를 비롯해 녹두 쿠키, 녹두쥬스 등 7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번 시식평가에서 나온 소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제품의 맛과 완성도를 높이고, 오는 11월 최종 보고를 거쳐 지역축제·관광·온라인 판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녹두는 고창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전봉준 장군의



3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고창읍 카페 트리어에서 '2026년 녹두 활용 디저트 메뉴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시식평가회를 열었다.

<사진=고창군>

정신을 품은 녹두가 이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디저트로 다시 태어나, 고창을 찾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상품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시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일부 지역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림에 따라 농경지 침수 여부를 점검하고 작물별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사진=정읍시>

정읍시, 호우 피해 작물별 관리요령 안내

농경지 침수 여부 점검  
기술 지원 강화

정읍시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일부 지역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림에 따라 농경지 침수 여부를 점검하고 작물별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농작물의 생육이 떨어지고 병해충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농가는 배수로를 신속히 정비하고 작물별 피해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벼는 중만생종을 중심으로 이삭이 나오고 낱알이 어무는 출수·등숙기가 진행되고 있다. 벼가 쓰러지거나 물에 잠기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물 빠짐을 잘 관리해야 한다.

수확기에 접어들어 조생종 벼가 침수되거나 쓰러졌을 때는 이삭에서 썩어 트는 수발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가 우려되는 논은 가능한 한 서둘러 수확하는 것이 좋다.

콩은 논두렁의 물꼬와 배수로로 정비해 물에 오래 젖어 발생하는 습해를 예방해야 한다. 침수로 생육이 떨어졌다면 요소비료를 뿌려 회복을 돕고, 휴당물이 묻은 작물은 상태를 확인해 씻어낸 뒤 적절한 방제해야 한다.

고추와 참깨 등 수확기에 접어들어 작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찍 수확할 필요가 있다.

과수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주변의 풀을 제거해 물이 원활하게 빠지도록 해야 한다. 수확기에 접어들어 과실은 미리 거두고 병든 과실은 제거해야 한다.

탄저병 등 호우 이후 발생하기 쉬운 병해도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수확기에 접어들어 작물이 많은 만큼 현장 점검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을철 태풍과 병해충 피해에 대비해 농가에서도 배수 관리와 적기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농기원, 파프리카 안정생산 해법 찾아

천적 및 데이터 기반  
환경관리기술 활용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3일 과채류연구소에서 파프리카 재배농업인과 연구개발, 현장지도, 관련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원에 천적활용과 데이터기반 환경관리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상기상과 병해충 발생 양상 변화에 대응해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해충관리기술과 온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환경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농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열린 세미나에서 백두현 대표(그린)는 파프리카 주요 해충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예찰 방법과 해충별 천적

선정, 투입 시기 및 정착관리 요령을 설명했다. 또한 천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선택성 작물보호제를 병행하고, 방제 후에도 해충과 천적의 밀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의기 대표는 (DK에코팜) 'AI 기반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 기술'을 주제로 온도·습도·일사·이산화탄소·양분 등 온실 센서 데이터와 환기·관수 등 구동 이력을 함께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개별 환경요인을 각각 제어하기보다 환경변수 간 상호작용과 작물의 생육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복합환경제어 사례를 공유했다.

박종숙 과채류연구소장은 “연구는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자세로 농업인과 함께하겠다”며 “천적 활용과 데이터 기반 환경관리 기술이 시설과채류의 안정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3일 과채류연구소에서 '시설원에 천적활용과 데이터기반 환경관리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농기원>

생산과 농가 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구와 기술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교사노조 “초등 ‘3시 하교’ 철회하라”

전국 초등생 65.5% “힘들다” 응답...  
“돌봄 공백 정규수업 연장이 해법 아냐”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북 교원단체가 학생 발달 단계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은

4일 성명을 내고 “초등교사노조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2만 9,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7교시까지 수업하고 3시에 하교하는 방안에 대해 65.5%가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며 ““더 공부해도 괜찮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 플랫폼에서도 해당 정책 철회 제안에 1만 4,000여 명이 넘는 동의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핀란드와 독일 등은 정규수업이 아닌 돌봄과 특별활동, 놀이가 결합

된 형태인데 이를 정규수업 연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왜곡”이라며 “지난 2018년에도 학생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 반발로 폐기됐던 정책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돌봄 공백 해법은 정규수업 연장이 아니라 늘봄학교와 돌봄교실의 인력·공간·프로그램 확충이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만큼 국가교육위원회는 ‘3시 하교’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사진=부안군>

##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 부안서 개최

9~13일까지 변산일원에서

부안군은 제11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비치게임)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요트협회가 주최·주관하고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후원한다.

올해 대회에는 일본, 태국, 미국 등 11개국에서 150여명의 국내외 선수단이 참가해 150척의 요트와 함께 아름다운 변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대회는 변화하는 해양 레포츠의 흐름을 반영해 포물리카이트를 비롯한 총 6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바람을 타고 수면 위를 빠르게 질주하는 역동적인 경기부터 정교한 조타와 세일링 기술을 겨루는 경기까지 다양한 해양 레포츠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박진감 넘

치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개회식은 오는 11일 오후 5시 변산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되며 대회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3시에는 폐회식이 진행된다.

또 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직접 해양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카이트(연날리기)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아름다운 변산해수욕장에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참여 선수단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게 경기를 즐기고 부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대회 지원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기간 변산해수욕장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해양 레포츠의 생동감과 함께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군산항1981 쉬엄쉬엄 데이’ 열린다

체험형 웰니스 프로그램  
12일·내달 3일 운영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제준)이 오는 12일과 내달 3일, 군산항1981 공간 전체를 활용한 체험형 웰니스 프로그램 ‘군산항1981 쉬엄쉬엄 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산 내항의 탁 트인 바다와 일몰을 조망할 수 있는 ‘군산항 1981(내항1길 12)’을 바탕으로, 웰니스 여행 트렌드에 맞춰 방문객에게 깊이

있는 정서적 휴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낮부터 일몰 시작까지 이어지는 웰데이 방식으로 총 2회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12일 열리는 1회차 행사는 ‘나를 기록하는 고요’를 주제로 아날로그적 심과 정적인 활동에 집중한다. △지역 독립서점 4곳(마리서사, 반쪽반쪽 빛나는, 봄날의 산책, 심리서점 쓰담)과 협업한 큐레이션 북 전시 및 낮맥 컬러링팅(1층) △인더뷰 부스 및 리딩파티(2층) △빈백 독서·바다 명상존 △선셋 낭독 콘서트(루프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어 내달 3일 진행되는 2회차 행사는 ‘선셋 비트 앤 바디(Sunset beat & Body)’를 주제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깨우는 동적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체형 측정 및 슬로우 러닝(1층) △싱잉 볼·조향 향기 명상 및 프로필 촬영(2층) △선셋 비트 앤 바디 요가 및 댄스(루프탑) 등 전문 강사진과 함께하는 웰니스 클래스가 운영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관내 독립서점, 웰니스 전문가, 소상공인 등 지역 관광 자원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단

순 관람형 관광을 넘어 지역 상권과 함께 호흡하는 ‘체류형 로컬 관광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각 회차 프로그램의 사전 신청은 군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1회차는 9월 11일까지, 2회차는 10월 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 전용으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 프로그램은 잔여 좌석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군산항1981’ → ‘프로그램 및 행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전북현대, 안방서 포항 잡고 선두 추격

전북현대모터스FC가 오는 5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6’ 2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현재 3위에 올라 있는 전북은 선두권 도약을 위해 승점 3점이 절실하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다소 주춤했으나, 26경기 23실점으로 리그 전체 2위인 탄탄한 수비력이 든든한 버팀목이다. 리그 5위에 머물러 있는 공격력(32득점)의 불모지를 터뜨리는 것이 이번 승부의 최대 과제다.

원정팀 포항을 상대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북은 올 시즌 포항과의 두 차례 맞대결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이번 27라운드에서도 포항을 꺾고 시즌 맞대결 3연승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경기 시작 전에는 중원의 핵심 강상운의 K리그1 통산 100경기 출전 기념 시상식이 진행된다. 장외 광장에서는 ‘K리그 X 산리오캐릭터즈’ 팝업



<사진=전북현대>

스토어와 지역 상생을 위한 ‘진안 홍삼 축제’ 홍보 부스 등 팬 참여형 이벤트가 열린다.

이도현 단장은 “홈 팬들 앞에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의 빛, 무주판타지아’ 막 올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6 무대작품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단법인전문예술그룹사과나무가 ‘전북의 빛, 무주판타지아’를 오늘 오후 5시 무주 등나무운동장 특별무대에서 공연한다.

‘전북의 빛, 무주판타지아’는 무주가 품은 역사와 생명력을 음악으로 풀어낸 창작공연이다. 무주의 자연과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를 엮어 지역이 간직한 ‘빛’의 의미를 표현한다.

공연에서는 덕유산의 생명력과 적상산사고를 지켜낸 승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무주의 역사 속 생명과 희생의 가치를 되짚고, 이를 오늘날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메시지로 확장한다.

남성 팽페라 성악가 5명과 여성 국악 명창 1명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팽페라에 판소리 구음을 더하고, 각 곡의 서사에 맞춘 영상으로 무대를 구성한다.

/장정철 기자

사과나무 이동성 대표는 “무주의 역사 속에 담긴 희생과 생명력의 이야기를 하나의 무대로 연결했다.”며, “지역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는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자원이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이야기가 우수한 창작 작품을 통해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6 무대작품제작지원사업’은 도내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공연 콘텐츠를 발굴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오늘 무주에 이어 내달 10일 임실에서도 열린다. 약 30분간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전문예술그룹사과나무에 문의하면 된다.

## 전북대 김가람 교수 ‘세종학당 유학 한국어’ 출간

대학 적응과 학업 수행 지원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캠퍼스 한국어학과 김가람 교수가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특별 교재 ‘세종학당 유학 한국어 1·2’를 펴냈다.

이번 교재는 전 세계 89개국 273개 세종학당에서 늘어나는 한국 유학 및 진학 수요에 맞춰 개발됐다.

1권은 입학 준비와 현지 생활 적응을 위한 의사소통 중심으로 꾸며졌으며, 2권은 강의 청취와 학술 자료 강독, 보고서 작성 등 실제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언어 역량을 기르도록 구성했다.

김 교수는 2022년 세종학당 정규 교재



김가람 교수

‘세종한국어’를 집필하고 세종한국어 평가(SKA) 출제위원을 맡는 등 유학생 교육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현재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한국어학과는 외국인 유학생 70명이 재학 중이다.

김가람 교수는 “해외 학습자들이 이 교재를 통해 대학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전북대에서 학업의 꿈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비 그친 뒤 찾아온 극한의 폭염,

## 건강지키는 3대 관리 규칙

- 충분한 수분 섭취
- 폭염시간대 활동자제
- 적정 냉방및 환기

## 익산시, 18일까지 국화축제 연계 할인 참여업소 모집

익산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제2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연계한 '가격할인업소'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가격할인업소는 축제 기간 시민과 관광객에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참여업소는 축제를 활용한 홍보와 신규 고객 유입 기회를 얻는 상생협력 행사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올해 두 번째로 운영된다.

특히 축제장에 집중되는 방문객의 소비를 지역 곳곳으로 연결해 축제장과 거리가 있는 상권도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집 대상은 익산 지역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다. 참여업소는 축제 기간 2명 이상이 방문하면 주류를 제외한 결제금액에 대해 업소가 정한 할인 혜택이나 무료 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 포장 이용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시는 참여업소의 홍보도 지원한다. 국화축제 공식 누리집을 비롯해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온라인 채널에 참여업소를 소개하고, 축제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도 업소 정보를 게재한다. 참여업소에는 화분 국화도 무료로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익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오는 18일까지 네이버폼이나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고창·부안 '한 장의 여행지도'로 묶는다

정읍시가 고창군·부안군과 함께 세 지역을 하나의 여행권역으로 알릴 공동 관광상표(브랜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개 시군은 지난 2일 고창군청에서 관계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서남권 관광브랜드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2003년부터 운영해 온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의 공동사업이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해마다 돌아가며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읍시에 이어 올해는 고창군이 맡았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한 공동 관광상표 개발 상황을 공유하고, 서남권의 정체성과 관광 매력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이름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공동 관광상표의 개발 방향과 이름 후보, 분야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면서도 정읍·고창·부안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3개 시군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 관광상표의 이름과 활용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추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서남권을 대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동상표를 구제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반부패·청렴도 향상 위한 주요 추진사항 점검

군산시는 3일 오후 3시 '맑은군산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중간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보완사항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2026년 AI 청렴 포스터 공모전 1차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32건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들은 청렴 주제와의 적합성, 창의성, 작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은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모전 심사 과정에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맑은군산추진단은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 시책을 발굴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수소충전소 '착공'

## 시간당 120kg 충전 이용 편의 개선 기대 올해 12월 준공

정읍시가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부지에서 수소충전소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수소충전소는 건축면적 780㎡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충전 규모는 시간당 120kg으로, 충전기 2기를 설치해 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등 다양한 수소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수소버스와 수소청소차 등이 늘어난 것에도 대비했다. 충전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별도의 추가 공사 없이 충전설비를 늘려 최대 3대까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구조로 건립한다. 수소충전소가 운영되면 충전 기반시



정읍시가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부지에서 수소충전소 건립공사에 들어갔다. <사진=정읍시>

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건립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사 관리와 시설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수소충전소 착공은 지역의 친환경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소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정읍, 지역경제 선순환 강화 2(題)

## 군산시,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민·관 협력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본연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9월 7일부터 이벤트 상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군산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선착순 173명에게 네이버 포인트 1만 원권을 추가 제공한다. 기부자는 기존 혜택인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담배품에 더해 총 14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주요 은행 앱(KB국민·기입·신한·하나·농협)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군산 발전을 응원해 주시는 기부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모아진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사랑상품권 쓰면 추가 환급

정읍시가 오는 12월까지 착한가격업소 37곳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5%를 추가 환급(캐시백)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정읍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기존 12% 할인에 5% 추가 환급이 더해져 최대 17%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부담을 낮추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사업에 국비 4500만원을 투입해 정읍사랑상품권 소비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과 만족도 높은 이용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몰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다. 시는 추가 환급을 통해 해당 업소의 매출을 늘리고 상품권을 통한 지역 내 소비의 선순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추가 환급이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착한가격업소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정읍사랑상품권과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미래 인재 키운다"

### 장학생 278명 선발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 지역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78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최정호 시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3일부터 9일까지 '2026년 익산사랑 장학생'을 모집한다.

올해는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장학생을 비롯해 △특별 △다자녀 △다문화 △예체능 △인성 등 6개 분야에서 초·중·고·대학생 총 278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서류를 준비해 익산시청 7층에 위치한 (재)익산사랑장학재단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단, 접수 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간여행축제' 준비 박차

### 추진위원회 3차 회의 개최

군산시는 3일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민 부시장과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송순건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참석자 가운데 '2026년 제3차 군산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축제의 방향성과 주요 프로그램,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계획 등 축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축제대행사의 축제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축제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군산시간여행축제는 군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있는 시 대표축제"라며, "추진위원회와 군산시의 역량을 모아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미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간여행축제는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개막일(2일) 군산시 최초로 펼쳐지는 해군 군악의장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글로벌 모던 플래시몹 △시간여행콘서트 △3.5만세운동 △모아모아 시간 등 관광객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군산시간여행축제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문화·예술부문 대상 수상에 이어 파이낸셜뉴스와 한겨레 등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군산시간여행축제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문화·예술부문 대상 수상에 이어 파이낸셜뉴스와 한겨레 등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시민과 양성평등 가치 나눈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익산에서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다목적홀에서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열렸다.

양성평등주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고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기간이다.

이날 행사는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정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여성지도자와 여성단체 회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익산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출산 장려와 가족친화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행복한 가정상'과 가족사진 공모전 수상자 12명에 대한 행사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라는 슬로건을 함께 제창하며 일상 속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익산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양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을 기울였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토종 생태계 살린다… '동자개' 방류

정읍시가 내수면 생태계를 복원하고 토종어류 자원을 늘리기 위해 3일 동진천 일원에 어린 동자개 11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외래 어종 유입 등으로 개체 수가 줄어드는 고유 어종을 보호하고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수산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와 정읍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칠보면 상가변영회와 청년회, 인근 명암사 주지스님과 지역 주민 등 모두 50여 명도 힘을 보탰다.

이날 방류한 동자개는 몸길이 4cm 이상으로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한

우량 종자다. 우리나라 하천에 잘 적응해 생존율이 높고, 하천 바닥층에서 서식하며 수생태계 먹이사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토종 어류다.

시는 방류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동자개의 생태적 특성과 올바른 방류 방법을 안내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정성을 모아 방류한 어린 동자개들이 동진천의 건강한 수생태계를 이끄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하천 특성에 맞는 우량 토종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맑고 생명력 넘치는 내수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김제시장 ‘새만금신항’ 앞 삭발 투쟁

## 새만금2호방조제서 시민·어민 500여 명과 공정심의 촉구

정성주 김제시장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을 앞두고 삭발이라는 결단으로 김제시민의 뜻을 전달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3일 새만금신항을 마주한 새만금 제2호 방조제에서 시민과 어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 공정심의 촉구 제4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앞두고, 김제 시민사회는 그동안 중분위 위위 구상과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속의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통령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세종시와 청와대에서 총 세 차례 집회를 개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중한 관할결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정 시장은 삭발식을 진행하며 “머리를 깎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오늘의 결단은 김제시민과 어민, 그리고 김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분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온전히 전달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중앙분쟁



정성주 김제시장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을 앞두고 삭발이라는 결단으로 김제시민의 뜻을 전달했다. <사진=김제시>

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시장의 이번 삭발은 단순한 상징적 행동을 넘어,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이 김제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 온 현지 시장으로서의 고뇌와 책임감이 담긴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 시장은 지난 결의대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며 삭발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참석으로 함께하지 못했다.

당시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있던 정 시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시민·어민과 다시 한번 결

의를 다지며, 그동안 가슴에 품어온 절박한 뜻을 삭발이라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줌과 동시에 새만금신항 관할문제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김제의 발전과 시민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 시장은 이번 삭발을 통해 시장으로서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책임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새만금신항은 김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공간”이라며 “그 관할결정은 어떠한 의문도 남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 권익현 군수, 새만금 말산업복합단지 등 건의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3일 정 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군수는 △새만금 말산업복합단지 조성 △석곡포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 등 지역의 미래 성장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말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활용해 말 생산·육성, 교육·연수, 재활·치유, 연구개발(R&D), 승마관광 등을 연계한 국가 단위 말산업 융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하고 말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7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비 5억원의 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석포 여객선터미널의 시설 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와

안전 확보, 탄소중립 체험·교육 거점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 말산업복합단지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은 부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성수 기자

## 고창군,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실시

### 전 군민 대상 7일까지

고창군은 오는 7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이어 방문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세대별 대표 1인이 정 부24 앱에 접속해 ‘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GPS 기준) 내에서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

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인구 관리를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등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

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기한은 주민등록표직권조치 공고 기간인 11월 30일까지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기후행동 공동결의대회 참석

### 3대 기후행동 목표 제시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에 참석해 민선 9기 임기 내 추진할 전환·감축·적응 분야의 구체적인 기후행동 목표를 발표하고 지역 중심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결의대회는 기후에너지전환

경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 국가기후대응위원회 위원장, 시민사회 활동가 및 시민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선언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통해 지역 전환을 이끌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부안군은 지역의 에너지·수송·생태환경 여건을 고려해 △수전해 기반 수소 하부 1톤 이상 생산 △지자체 등록 무공해차 전환율 6% 이상 달성

△갯벌생태계 복원을 위한 염생식물 20만㎡ 이상 식재 등 전환·감축·적응 분야를 아우르는 3대 기후행동 목표를 제시했다.

부안군은 앞으로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성과 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제시한 기후행동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안=신성수 기자

### 부안군,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 7만 4천여 마리 접종 실시

부안군은 구제역 없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감염 시 구강,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식욕이 저하되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할 수 있어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가축질병이며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번 일제접종 기간에는 한우와 젖소 3만 2천여 마리를 비롯한 우재류 7만 4천여 마리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가축 소유자가 직접 접종하는 자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부안군은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시설능력이 없는 농가 등의 경우 공수의사와 관내 공·개업 수의사 6명이 예방접종 시설을 지원한다.

소 50두, 돼지 1,000두, 염소 30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에는 백신을 무상공급하며, 소 50두이상 ~ 99두 이하의 전업농가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백신을 무상공급한다. 소 100두 전업농가는 고창부안축협 부안지점에서 백신 구입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

군 축산과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은 필수 사항인 만큼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과 농장 차단방역, 주기적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신성수 기자

### 김제문화원 ‘내 고장 바로알기’ 순항

#### 시티투어 프로그램 ‘호응’

김제시는 김제문화원(원장 박현이)이 문화 소외 계층인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추진 중인 ‘내 고장 바로알기’ 시티투어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복지·문화 프로그램에 접해보지 어려웠던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외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활력을 되찾고, 지역 명소 탐방과 치유농장 체험을 통해 소속감 증진과 힐링의 시간을 선물한다는 취지다.

지난 8월 25일 첫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1·2회차가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박 문화원장이 직접 전속 해설사로 나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해당 읍·면·동의 역사와 지

명 유래, 문화유산은 물론 새만금 사업 현황과 김제시의 미래 발전상까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현이 김제문화원장은 “1·2회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오는 10일까지 남은 회차도 알차고 안전하게 진행해 어르신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평소 문화 체험 기회가 적었던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발전하는 김제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경로당 어르신 내 고장 바로알기’ 시티투어는 오는 1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어지며, 관내 경로당 어르신 240여 명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예술회관, 9월 무료 영화 ‘군체’ 상영

#### 17일, 2회 진행

부안군은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오는 17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9월 무료 영화 ‘군체’를 상영한다고 밝혔다. 영화 상영은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하루 2회 진행된다.

이번에 상영하는 ‘군체’는 연상호 감독이 연출하고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등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출연하는 스릴러·액션 영화이다. 정체 불명의 감염 사태로 고립된 초고층 건물 안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하는 감염자들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자들의 치열한 사투를 박진

감 넘치게 그려냈다.

영화의 러닝타임은 122분이며 관람료는 전석 무료다. 15세 이상 관람가 가능하며, 별도의 예매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만석 시 입석 관람은 불가하며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공연장 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는 금지된다.

부안군 예술회관 관계자는 “군민들이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전지현 배우의 압도적인 연기와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해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화 상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안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성수 기자

### 고창식품산업원 김치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발효 조절 기술 개발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지역 김치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효 조절 및 유통 안정성 향상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과제는 고창군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인 ‘K-푸드 국내외 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최근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산 김치의 해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 과정에서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김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유통 과정에서 발효가 지속되는 특성

이 있어 장기간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품질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연구원은 관내 김치 제조업체의 제품 특성과 제조공정을 분석하고, 글로벌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발효 조절 및 저장 안정성 향상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을 지역 김치 제조업체에 적용해 제품의 품질 안정성과 상품성을 높이고, 향후 국내의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생기 원장은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관내 김치 제조업체가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 자원순환 새로운미 축제’ 부스 관계자 회의 개최

김제시는 ‘제4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운미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스 운영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환경 교육과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를 이끌어갈 실무자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구역별 세부 콘텐츠, 현장 운영 지침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참여 단체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 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관계자들은 완성도 높은 친환경 축제를 만들겠다는 강한 열의와 책임감을 나타냈다.

‘제4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운미 축제’는 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김제시민 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한 다양한 최신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90여 개의 자원순환 체험·전시·교육 부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운영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행사인 만큼,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축제를 직접 이끄는 주역이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품고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 고인돌 형성·경관 복원’ 국제학술대회 열려

고창군이 국립암주문화유산연구소와 함께 3일 고창 웰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고창 고인돌 유적의 형성과 경관 복원’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형성 과정과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당시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 1건과 국내외 주제발표 7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는 하문식 교수(연세대)가 ‘세계 거석문화 속의 고창 고인돌’을 주제로 고창 고인돌 유적이 지닌 세계사적 의미를 조명했다.

국내 주제발표는 △‘고창 고인돌 유적 군집 유형 재분류 및 입지 특성 분석’ △‘고창 죽림리 지석묘 축조석재의 기술적 선택과 조달전략’ △‘고창 고인돌 유적 주변 충적평야 일대의 고환경 복원을 위한 예비 조사’ △‘거석기념물 관점에서 본 고창 고인돌의 경관 형성과 인식’ 순으로 진행됐다.

국외 주제발표에서는 △‘일본 지석묘의 형성과 경관’ △‘중국 요동반도 석봉의 문화 계보’ △‘복원, 보존 및 연구: 영국의 거석기념물 관리’를 통해 세계 각지의 거석기념물 형성과 경관 사례를 살펴봤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형성과 경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계 각국의 거석문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4개 과정·34개 과목 운영

김제시여성회관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여성들의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도 제4분기 여성회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4개 과정 34개 과목으로, 취미·교양 분야에 스포츠댄스 등 15개 과목, 건강 분야에 요가 등 6개 과목, 인문·교양 분야에 기초영어 등 5개 과목, 야간 프로그램으로 난타 등 8개 과목이다.

김제시에 주소를 둔 여성은 누구나 신청 가능(남성생활요리·남성)하며 방문 점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수강료는 3개월에 15,000원이다. 이번엔 모집된 수강생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교육이 진행된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여성들의 일상에 활력을 얻고 자기계발과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사회복지의 날’ 현장 화합 2(題)

| 남원시 복지박람회 성황…2천여 명 한자리                                                                                                                                                                                                                                                                                                                                             | 완주군, 복지 발전 민관 연대 의지 다져                                                                                                                                                                                                                                                                                                                                                                 |
|--------------------------------------------------------------------------------------------------------------------------------------------------------------------------------------------------------------------------------------------------------------------------------------------------------------------------------------------------------------------|----------------------------------------------------------------------------------------------------------------------------------------------------------------------------------------------------------------------------------------------------------------------------------------------------------------------------------------------------------------------------------------|
| <p>남원시는 3일 사랑의 광장에서 ‘제27회 남원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제9회 남원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했다.</p> <p>이날 행사는 남원시장, 국회의원, 남원시의장, 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사회복지 종사자,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사람더하기, 행복나누기, 열정공하기=복지남원’의 주제와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p> <p>먼저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 종사자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이어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의 기념사와 주요 내빈의 축사,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낭독과 함께 박람회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이어졌다.</p> | <p>완주군과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임평화)가 3일 완주향토예술평화관에서 ‘제27회 완주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과 연대의 뜻을 모았다.</p> <p>이날 기념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성종자 완주군의회의장, 임평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 비롯해 사회 복지기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p> <p>행사는 늘푸른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복지유공자 표창, 후원기업 감사패 전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차례로 진행했다. 이어 사회복지인 화합 퍼포먼스와 고고장구, 팼패라,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해 참석자들이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p> |

## 완주군의회, 갈산교차로 혁신 진입로 확보 촉구

### 국도 병목지점 개선 건의안 가결 교통정체 해소·2차 이진기 기반 확보

완주군의회 소병호 의원이 3일 대표발의한 「국도 1호선 갈산교차로 혁신도시 진입로 확보를 위한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수정 반영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도 1호선 갈산교차로의 불합리한 진출입 구조를 개선하고 완주·전주 혁신도시 방향 진입로를 확보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완주·전주



소병호 군의원

혁신도시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간선망인 국도 1호선 갈산교차로에서 혁신도시로 직접 진입하는 연결로가 없어 차량들이 우회하면서 교통정체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산교차로 진입로 확보는 단순한 교통 불편 해소를 넘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

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국도 1호선 갈산교차로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 △갈산교차로 혁신도시 방향 진입로 신설사업의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2023~2027) 기본계획」 수정·반영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진입하지 못해 매일 우회해야 하는 현재의 교통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갈산교차로 진입로 확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혁신도시의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동부권 4-H본부 한마음대회 순창서 개최

### 순창·임실·남원 회원 450여 명 참가 우수 회원 표창·농촌만들기 결의

한국4-H순창군본부가 주관한 ‘제15회 동부권(임·순·남) 4-H본부 한마음 대회’가 지난 2일 순창발효테마파크 고추장상설문화마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순창, 임실, 남원 3개 시·군 4-H본부 회원과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해 회원 간 결속을 다지고 지역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는 한국, 고리걸기, 투호 등 전통 민속경기로 구성된 식전 한마음 경기를 시작으로 개회식과 오찬, 노래자랑 등 한마음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4-H 서약 제창과 함께 우수 회원 표창,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권오상 한국4-H순창군본부 회장은



<사진=순창군>

“이번 대회가 지자체 간 농업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청년 및 후계 농업인 육성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한국 4-H본부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미래 농업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4-H본부는 미래 농업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력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농업인 학습단체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4~5일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연다

### 둔산공원서 농특산물·성수품 판매 기업·산단근무자 현장 할인 혜택

완주군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둔산공원 일원에서 ‘2026년 추석맞이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를 연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관내 농가와 완주물 입점업체에 직접 판매 판로를 열어주어 매출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했다.

남편노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

는 체험 행사도 풍성하다. 명절 분위기를 돋우는 전통 ‘떡매치기’를 비롯해 건강을 챙기는 ‘약초 마사지 봉 만들기’, 개성을 살리는 ‘스티커 네일아트’와 ‘우드페인팅 킥 만들기’ 등 4개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완주 관내 기업체 및 산단 근무자들을 위한 현장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사원증이나 명함을 제시할 경우 보다 알뜰한 가격에 명절 성수품과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장터는 이틀 모두 오전 10시 30분부

터 문을 연다.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는 메인 무대에서 직거래 장터 이벤트와 레크리에이션을 열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관내 농가와 입점업체에는 실질적인 판로를 넓혀주고 군민과 기업 근로자에게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뜰하게 장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제19회 순창군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성황’

#### 17개클럽동호인 150여명 참가 어르신 생활체육 참여활력도모

순창군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고 화합을 다지는 생활체육 한마당이 펼쳐졌다.

순창군은 3일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에서 ‘제19회 순창군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순창군게이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관내 17개 클럽에서 동호인 150여 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읍·면 게이트볼회장 등도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대회는 경기의 승패를 넘어 지역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경기를 통해 건강을 다지는 동시에 클럽 간 친목과 화합을 돈독히 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게이트볼은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얻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고향사랑기부 담례품-공급업체 모집

#### 농·축·임산물 등 4개 분야 모집 업체당 최대 3개 품목 신청 가능

완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자에게 제공할 우수 담례품 발굴을 위해 담례품 및 공급업체를 새롭게 모집한다.

군은 “2026년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및 공급업체 모집”을 공고하고,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신청 서류를 받는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중 담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제조하고 기부자에게 차질 없이 배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모집 분야는 농·축·임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관광 및 서비스 상품(숙박권·입장권·체험권 등) 4개 분야로, 업체당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점수된 품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담례품 및 공급업체로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완주의 우수한 농특산물은 물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담례품으로 발굴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업체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자원봉사자 ‘생명지킴이’ 역량 강화

#### 100여명대상위험신호대응교육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일 남원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4차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마음의 신호를 읽다’를 주제로 자원봉사 활동 중 만나는 이웃의 자살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소통하며 필요한 도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박지영 센터장이 맡아 자살 위험 신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 위기 상황에서의 경청과 도움 연계 방법, 자살 유족에 대한 이해와 공감적 소통, 지역사회 생명지킴이로서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자원봉사자가 위기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보다 주변의 작은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연결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 후에는 아로마 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건강 관리 방법도 함께 체험했다.

한 자원봉사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부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총 4차례의 역량강화교육을 운영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사진=완주군>

### 완주 용진 두억마을, 전통 ‘지게가락’ 맥 잇는다

#### 완주군 마을특성화사업 선정

완주군 용진을 두억행복드림마을(대표 박종배)이 ‘2026년 완주군 마을특성화사업’에 선정돼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인 ‘두억 지게가락’ 심화교육과 재능나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두억 지게가락’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땀나루나 농작물을 지게에 지고 오가며 지게막대기로 장단을 맞추고 노래를 부르며 고된 일의 피로를 씻던 두억마을 고유의 전통 소리다.

두억마을은 이번 사업으로 전문가 지도강사를 초빙하고 진도아리랑 등

마을 이야기를 담은 가사 개사와 지게장단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마을 최고령인 99세 장수 어르신을 비롯해 마을 어르신들이 주축으로 참여해 직접 지게를 짊어지고 장단을 맞춘다.

또한, 다양한 지역 행사에서 재능나눔 공연을 펼쳐 완주 전역에 전통문화의 멋과 활력을 전할 계획이다.

박종배 두억행복드림마을 대표는 “완주군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준 덕분에 전통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제65회 통계연보 공표 지역 기본 현황 ‘한눈에’

순창군이 군정 전반의 현황과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제65회 순창군 통계연보’를 공표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로 수록되었으며, 토지, 인구, 환경 등 군정 및 지역사회의 전반의 주요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담았다. 각 부서와 관계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최근 5년간의 변화 추이를 함께 제시한 주요 통계자료를 통해 순창군의 인구·산업·사회 등 지역 전반의 현황과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계연보는 지역의 주요 현황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기초 자료로서, 군정 주요 정책 수립 및 지역 현안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표된 통계연보는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지역 현황에 관심 있는 군민과 관계 기관 등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제65회 통계연보는 순창군의 현재 모습과 그동안의 변화를 객관적인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매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공표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서 ‘회귀 춘향’ 선보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이 남원의 대표 문화 자산 ‘춘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뮤지컬 ‘꿈을 품은 사랑 춘향’을 선보인다.

‘꿈을 품은 사랑 춘향’은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과 12일 오후 3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작품은 절거 위기에 놓인 춘향 박물관을 지키려는 학사에 가인이 과거로 돌아가 춘향이 돼 ‘정절’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현실로 돌아와 박물관을 세계적인 민속 박물관으로 알려 나가는 이야기다. 전통의 가치를 현대의 시선으로 새롭게 풀어내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다.

무대에는 김중희 예술감독과 지도단원, 청소년 합창 45명이 함께 오른다.

올해 36회째 개최되는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는 단원들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예술적 역량과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자리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소통의 장으로 이어져 왔다.

남원시립예술단장 이성호(부시장)는 “우리 고장의 이야기인 ‘춘향’을 청소년 단원들의 목소리와 무대로 새롭게 그려냈다”며 “오랜 시간 준비한 단원들의 열정을 많은 시민들이 함께 지켜봐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남원시 통합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 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립도서관, 독서의 달 맞이 어린이 뮤지컬 공연 열려

순창군립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12일 오후 2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뮤지컬 ‘집 나가지 꿀꿀꿀’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이 책 속 이야기를 공연예술로 접하며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다.

공연 관람 신청은 네이버폼(<https://naver.me/Fjm7RnhY>)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모집인원 총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립도서관(063-650-56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지역 어린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좋은 공연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을 찾는 즐거움을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경정비 지원

고창군장애인복지관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  
인복지관과 연계해 추진한 '장애인 이동보조기  
기 경정비 지원 사업'을 지난 2일 성황리에 마  
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동보조기기(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를 사용하는 지역 장애인의 안  
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타이어, 제동장치  
등 소모품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업은 전주보장구수리센터의 전문 기  
술진의 협조로 이동보조기기의 안전상태를 점  
검하고 소모품 교체 및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  
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부  
품을 미리 파악·준비했으며 집행 된 예산은 전  
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130만원 지원으로  
장애인분들에게 무상의 제공 서비스를 참여자  
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익산 동산동에 달콤한 나눔 강정천하 '착한가게' 동참

익산시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  
원장 강명경·심현무)는 3일 '강정천하 익산동  
산점(대표 김종석)'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강정천하는 닭강정을 비롯해 새우강정, 떡강  
정 등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착한가게 가입으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나  
눔에도 힘을 보태게 됐다.

김종석 대표는 "맛있는 강정으로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것처럼 나눔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며 "지역사회에 기본 좋  
은 힘을 보태는 가게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명경 동산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뜻을 모아주신 강정천하에 감사드린다"며 "따  
뜻한 마음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해져 나눔  
의 향기가 가득한 동산동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  
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장수군자원봉사센터, 홀몸 어르신 생일잔치

### 행복장수 만들기 프로젝트

사단법인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민호)는 장수군여성단  
체협의회(회장 이숙자) 및 자원봉  
사단체와 함께 3일 번안면 상북마  
을회관에서 87세 어르신을 위한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  
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 지원사업으  
로, 지역 내 홀몸 어르신에게 가족  
과 같은 따뜻함을 전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전날인 2일에는 장수군여  
성산악회(회장 배서운) 회원들이  
장수군자원봉사센터에 모여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쑥카스테라를  
직접 만들었다.

이어 3일에는 여성산악회원들이  
미역국과 불고기, 잡채, 전, 두부조  
림 등 다양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상북마을회관에서 주민들  
과 함께 따뜻한 생신상을 차리고  
작은 생일잔치를 열었다.

이날 생신을 맞은 어르신은 자  
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음식과  
케이크를 비롯해 꽃다발과 선물  
등을 전달받고 깊은 감사와 감동  
의 마음을 전했다. 마을 주민들도  
함께 생신을 축하하며 따뜻한 이  
웃의 정을 나눴다.

/장수=최진수 기자



사단법인 장수군자원봉사센터는 장수군여성단체협의회 및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3일 87세 어르신을 위한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장수군자원봉사센터>

## 정읍 청년농 '전북 스마트 드론 경진대회'서 맹활약

### 농업용 무인기 실력 겨뤄 최선호 팀 대상 수상

정읍시가 지난 2일 정읍체육특례  
이닝센터 육상경기장에서 '2026년  
제3회 전북 청년농 스마트 드론 경  
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읍의 최  
선호 팀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지역 청년 농어  
업인들이 농업용 무인기(드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영농 현장에서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청년 농어업인 80여 명  
이 참여했으며, 10개 팀이 경진에  
나섰다.

대상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은  
최선호 팀(정읍시)가 받았다. 최우  
수상인 정읍시장상은 정성훈 팀(정  
읍시)과 김영선 팀(김제시)에게 돌  
아갔다. 한현진 팀(정읍시), 이명준  
팀(부안군), 정용국 팀(김제시)는 우  
수상인 한국농수산대학청년연합회 전  
북지부 회장상을 받았다.

/정읍=김정민 기자



### 참전유공자 김영곤 어르신에 대통령 명의 증서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김상  
희)은 지난달 25일 6·25참전유공  
자 김영곤(90세) 남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수했다  
고 밝혔다.

이번 증서 전수는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  
고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해 마  
련되었다.

대통령 명의로 발급된 국가유공  
자 증서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최고의 감사와 존경

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전수식에는 김상희 전북동  
부보훈지청장이 직접 유공자의 자  
택을 방문하여 증서와 위문품을  
전달하고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  
다. 증서를 받은 국가유공자 김영  
곤 어르신은 "지나간 세월 동안 나  
라를 지켰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  
아왔는데, 이렇게 국가유공자 증  
서를 받게 되니 매우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 남원시가족센터-필리핀 봉사단 나눔키트 전달

남원시가족센터(센터장 나찬도)  
는 지난 3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  
아 필리핀 결혼이민자 봉사단과  
함께 직접 제작한 '추석맞이 나눔  
키트'를 남원시 드림스타트에 전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키트는 남원시에 거주  
하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 모  
임인 "필리핀happy 봉사단"이 지  
역 아동들을 위해 직접 정성을 담  
아 준비했다.

단원들은 재료 선정부터 제작,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커  
피 삼푸, 바디워시 등 친환경 생필  
품과 레몬생강청, 견과타르트 등  
수제 간식을 직접 만들었다. 나눔  
키트는 드림스타트를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 15가구에 전  
달될 예정이다.

나찬도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  
문화 가족의 재능과 온정을 지역  
사회와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시가족센터-국제와이즈맨 혼불클럽, 주거환경 개선 봉사

남원시가족센터(센터장 나찬도)는 지난달  
30일 '국제와이즈맨 혼불클럽'과 함께 관내 취  
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국제와이즈맨 혼불클럽 회원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낡은 도배와 장판을 새것으로 교  
체하고, 집안 내부 정리정돈을 도우며 쾌적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전체완 국제와이즈맨 혼불클럽 회장은 "회  
원들의 정성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보  
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활  
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나찬도 남원시가족센터장은 "바쁜 일정에  
도 재능기부에 나선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리  
며, 앞으로도 지역 단체들과 협력해 복지 사각  
지대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맞춤  
서비스와 위기가정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을  
꾸준히 운영하며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역할  
을 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김제 교월동지사협 천사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  
장협의체(위원장 조종욱)와 지난 2일 천사 무  
료급식소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무더운 날씨에도 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들  
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봉사에는 협의체 위원 3명과 교월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함께 참여해 어르신  
들의 식사 배식을 돕는 것은 물론, 식사 후 식  
기 수거와 설거지 등 일손을 거들며 뒷정리를  
도왔다.

또한, 어르신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안  
부를 살피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시간을 가  
져 봉사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조종욱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  
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와 실천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  
적인 봉사와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 일상속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01  
적당한  
냉방/난방 온도  
유지하기

02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 장바구니  
사용 하기

03  
걸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一事一言〉



전북, 예산은 있어도 정책은 없다

곽보경

작가·前 국회정책연구위원

몇 해 전부터 전북 지역 예술인들을 만나면 비슷한 대목에서 대화가 멈추는 걸 본다. 창작지원금 얘기가 나오면 다들 잠깐 헛웃음을 짓고, “그거 몇 년째 그대로 예요”라는 말이 뒤따른다.

처음엔 암살이겠거니 했는데, 몇 번 더 듣다 보니 그 말이 정확한 사실 진술이라는 걸 알게 됐다. 실제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의 상한은 장르를 불문하고 몇백만 원 선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 총 사업비가 늘었다는 보도자료는 매년 나오는데, 정작 신청서를 채우는 한 사람의 몫은 그대로다. 예산이 커진다는 소식과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늘지 않는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곳 예술인들은 매해 다시 확인하는 셈이다.

숫자를 나란히 놓아보면 그 간극이 더 뚜렷해진다. 전북의 개인 창작지원 상한은 문학 분야 기준 300만 원이다. 서울의 문학 분야 개인 창작지원원은 그보다 세 배 넘게 많은 1,0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물가와 임대료가 서울보다 낮으니 그만큼 적어도 된다는 식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창작에 드는 재료비와 시간의 값이 지역이라고 3분의 1로 줄어드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역에는 지역대로 서울에 없는 부담이 있다. 작업실을 구하기도, 협업할 동료를 찾기도, 발표할 무대를 잡기도 서울보다 쉽지 않은 조건에서, 지원금 액수마저 이렇게 뒤처진다면 이중으로 불리한 셈이다.

게다가 이 상한선은 몇 년째 요지부동이다. 총사업비가 늘었다는 발표 뒤에는 신청 가능한 인원이 늘었다는 뜻이 숨어 있을 뿐, 한 사람이 받는 몫이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무기력이 가장 아프게 드러나는 곳은 가장 열악한 자리다. 도내 소공연장에서 일하는 청년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지원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이 의외 심사에서 드러났다.

담당 부서의 답은 “예산을 올렸지만 깎았다”는 것뿐이었다. 없는 것보다야 낫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이 도가 예술인의, 그리고 청년의 노동을 얼마나 값싸게 여기는지를 숫자로 확인시켜 준 셈이다.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최저임금법의 취지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업을 설계해 놓고, 청년 예술인을 위한 정책이라 부르는 건 지원이 아니라 지원의 흉내에 가깝다.

지역에 남아 창작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액수가 아니다. 최소한 몇 년에 한 번은 상한선이 움직인다는 신호, 그 정도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긴다.

물가는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는데 지원금만 제자리라면,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조금씩 줄어드는 셈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전북의 지원금은 발표되는 해가 다르고 총액이 다를 뿐, 정작 개인이 받는 숫자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신규 사업의

이름은 계속 새로 생기는데, 정작 오래된 사업의 지원 수준은 오래도록 그대로인 이 어긋남이야말로 이 지역 예술인들이 매번 마주치는 현실이다.

전북은 해마다 “문화도시”, “문화특별자치도”라는 구호를 내건다. 그 구호 아래서 예산은 분명 늘어나는데, 창작을 지탱하는 핵심 지원금은 멈춰 있고, 그 수준이어야 하는 이유도 앞으로 얼마나 늘리겠다는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지원금 액수 하나를 올리는 결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왜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줄일 계획조차 없는지 도는 답한 적이 없다.

늘어나는 예산표 뒤에서 정작 예술인의 삶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 도시가 스스로 내건 구호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새 사업 하나를 더 발표하기 전에, 몇 년째 같은 숫자로 멈춰 있는 그 상한선부터 다시 들여다볼 수는 없을까. 그 숫자야말로 이 도의 문화정책이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일 테니 말이다.

| 독자투고 |

디지털 증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메신저 대화, SNS 기록, 클라우드 자료 등 디지털 정보는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정보는 삭제나 변경이 쉬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는 오늘날, 신속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6년 7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증거가 삭제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기간 전자정보를 보존하도록 요

청할 수 있는 ‘전자정보 보존요청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압수수색이나 통신자료 확보 등 후속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스톡킹 등 다양한 범죄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디지털 공간에 남는다.

그러나 서버에 저장된 자료도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디지털 범죄 수사의 성패는 얼마나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의 수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맞춰 수사제

도 역시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발전해야 한다.

전자정보 보존요청 제도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수사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법절차와 국민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신속한 증거 보존은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디지털 시대의 정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사라질 수 있는 진실을 미리 지켜내는 데서 시작된다.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순경 홍민기

‘밀라노 외유’ 실무자 징계로 끝낼 일 아니다

전북교육청의 이른바 ‘밀라노 외유’ 논란이 감사와 행정조치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유정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출장 관계자들에게 신분상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예산 집행은 총괄한 해당 부서 과장에게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정작 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교육청을 이끌었던 유 부교육감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래서는 책임 있는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외출장 논란이 아니다. 학생 체육영재 육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3700만 원을 들어 교육청 최고위 간부 등이 6박 7일 일정으로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방문하면서 촉발됐다. 출장 목적과 일부 일정의 연관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이 일었고 결국 출장비 전액을 자진 반납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감사의 핵심은 명확해야 한다. 누가 출장을 결정했고 누가 승인했으며,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해외출장에 투입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당시 교육청 최고 책임자였던 유 부교육감의 책임을 빼놓고 이 사건을 정리할 수는 없다.

더욱이 실무를 총괄한 과장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최고 책임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행정에서 권한과 책임은 비례해야 한다. 결재권과 결정권을 가진 고위직은 뒤로 빠지고 실무자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면 공식사회가 이를 납득하겠는가. 출장비를 반납했다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잘못 사용된 예산을 돌려놓는 것은 당연한 조치일 뿐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전호성 교육감 체제는 이번 사안을 어땠는지 봉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와 처분 근거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한 책임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추락한 전북교육 행정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밀라노 외유’의 마침표는 비공개 행정조치가 아니라 명확한 책임 규명이어야 한다.

▲오늘의시

정지의 힘 / 백무산

가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시인 약력 : 1955년 경북 영천 출생. 1974년에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 노동자로서 입사한 뒤 1984년 민중시 제1집에 ‘지옥산’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노동해방문학’ 편집위원을 지냈고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당했다. 시인 박노해 등과 함께 1980년대 노동을 주제로 시를 썼다.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을 담고’는 1988년 울산 현대중공업 대파업 투쟁을 완결된 장시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                                                                                                                                           |                    |                                             |                    |
|-------------------------------------------------------------------------------------------------------------------------------------------|--------------------|---------------------------------------------|--------------------|
|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br>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                    |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밀라노)54990 |                    |
| www.jeonbuktimes.co.kr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                    |
| 발행·편집인 송민순                                                                                                                                |                    | 편집국장 장정철                                    |                    |
| 대표전화 282-9601                                                                                                                             |                    | 인쇄인 김은주                                     |                    |
| 업무국 팩스 282-9604                                                                                                                           |                    | 편집국 팩스 283-8800                             |                    |
| 전주시사 010-9845-4113                                                                                                                        | 군산지국 010-8841-7942 | 무주지국 010-8411-0835                          | 부안지국 010-7247-3947 |
| 중영지사 010-98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임실지국 010-8642-6502                          | 고창지국 010-2258-3734 |
| 인후지사 010-8640-6855                                                                                                                        | 익산지국 010-9560-3075 | 진안지국 010-2433-1721                          | 완주지국 010-3672-0308 |
| 팔복지사 010-3015-4791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826-6049                          |                    |
| 송천지사 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                    |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진실을 기록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의 언론”

전북 Times



# 익산시, 맞춤형 장난감 대여로 양육비 부담 '뚝'

익산시가 고물가 시대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촘촘한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맞춤형 장난감 대여 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대표 육아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금강동 그림책숲도서관 부지에 '수도산장난감도서관'을 새롭게 개관하면서 익산 전역을 아우르는 '동서·중앙 3대 권역별 장난감 대여망'을 최종 완성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아이의 빠른 성장 단계에 맞춰 고가의 장난감과 교구를 지속해서 구매하는 일은 영유아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시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풍부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자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연회원 수가 1,300명을 돌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편집자 주〉



## 수도산 개관으로 동·서·중앙 3대 권역망 완성 연회비 2만 원에 4,000여 점 통합 이용 철저한 위생 관리 시간제·야간 원스톱 돌봄

◆ 3대 권역 거점 완성...1,400여 점 4,000여 점 구축

익산시는 기존 영등동 본원과 모현동 서부권 센터에 이어 동부권의 금강동에 수도산장난감도서관을 신규 개관하며 총 3개 거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총 1,400여 점, 4,000여 점에 달하는 대규모 장난감과 교구 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중앙 거점인 영등동 본원은 3~5세 유아를 위한 '튼튼놀이 체험관'과 0~2세 유아 대상 '쑥쑥놀이 체험관'을 갖추고 사회관계, 예술경험, 의사소통, 신체운동 등 발달 영역별 맞춤형 교구를 지원한다.

서부권 거점인 모현동 센터는 그물 놀이터와 낚시 놀이터 등 신체활동 중심의 '노리트랙 체험관'과 가족 쉼터를 결합해 운영 중이다.

새롭게 문을 연 동부권 수도산장난감도서관은 141종 486점의 신규 장난감과 함께 대여실, 수유실, 맞춤형 프로그램실을 완비했다.

지난 12년간 축적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살려 영유아 맞춤형 놀이 프로그램도 정기 운영한다.

◆ 연 2만 원에 3개 거점 통합 이용...다자녀 혜택 확대·시 직영 철저 위생 이용 편의성과 경제성도 대폭 강화했다. 익산시민은 누구나 연회비 2만 원으로 회원에 가입하면 영등동, 모현동, 금강동 3개 지점의 장난감을 통합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회원은 지점당 6점씩, 월 최대 18점까지 대여 가능하다. 1회 대여 기간은 15일이다.

특히 7세 이하 영유아를 2명 이상 양

육하는 다자녀 회원은 지점당 9점씩 월 최대 27점까지 대여 폭을 넓혀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절감을 돕는다. 위생과 안전관리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일부 지역과는 달리 익산은 시 직영 체제를 유지하며 보육 전문요원과 운영 인력이 상주한다.

반납된 모든 장난감은 꼼꼼한 세척과 자외선 살균 소독, 철저한 안전 점검을 거쳐 다시 대여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 대여 넘어 '원스톱 통합 돌봄'...야간·공휴일 틈새 없는 돌봄망 가동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대여에 그치지 않고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아우르는 전국 최초 '원스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빈틈없는 보육 환경을 지원한다.

6개월 영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돌보는 체계로, 주간 시간제 보육은 물론 야간(오후 6시~10시)과 주말·공휴일(오전 9시~오후 6

시)에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 맞벌이 가구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 숲 체험, 토요 원데이 프로그램, 가족 힐링 체험, 육아 상담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가족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실외 놀이터 그늘막 설치 등 폭염 속에서도 아이들이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 개선 투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나은정 익산시 복지국장은 "수도산장난감도서관 개관으로 동부권과 서부권, 중앙권을 잇는 촘촘한 맞춤형 육아복지 네트워크가 완성됐다"며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과 교구를 경험하며 창의성을 키우고, 부모님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과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명품 아동친화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통과 신뢰의 매일 아침



전북타임스신문



속도와 공감의 실시간 소식

당신의 눈, 전북특별자치도의 힘  
전북타임스



구독문의: 063-282-9600~3/ www.jeonbuktimes.co.kr